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진안사람 어울 한마당 성료

도시민·군민 등 3000여명 찾아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뜨거운 사랑

최근 열린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제6회 진안사람 어울 한마당 축제'가 전북도민, 전주시민, 진안군민 등 3000여명이 어울어져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천고백리의 계절 가을 밤하늘에 수놓은 이번 행사는 호남의 지방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11개 읍면 농·특산물들이 큰 호응을 받았다.

직거래장터와 더불어 이날 펼쳐진 프로그램들은 진안 사람 어울 한마당 문화행사를 새롭게 이끌어냈다.

특히, kbs happy FM 92.9mhz 홍석우의 즐거운 저녁길 DJ 홍스타, 홍석우씨의 구수한 진행과 전주 MBC 표준FM 94.3MHz 101.1MHz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도 진행 됐다. 아울러 kbc금강방송 양재호 찬조했다.

전주시민 노래자랑 대회에서는 총 33명이 접수, 예선 후 본선 진출자 12명 선발, 노래자랑 대상 이숙, 차상 김재중 등 본선 진출자에게 진안 농·특산물이 부상으로 수여 됐다.

윤석정 재전진안군향우회 회장은 "진안농산물을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제6회 진안사람 어울 한마당 축제가 최근 전북도민, 전주시민, 진안군민 등 3000여명이 어울어져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구매해주시고 진안에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을다해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알차고 더 풍성한 행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 청년 협의체 출범식 200여명 참석

진안군 청년협의체(회장 박두환)가 지난 7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년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청년협의체는 진안 청년의 소통과 자립기반조성,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여 타 자치단체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단체 관련 초청강연을 듣고 청년 간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다.



진안은 청년의 인구 유출이 많고 청년 공동체 의식도 점차 사라져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있어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진안 청년협의체 회장을 맡은 박두환씨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회원 상호간은 물론 행정과 청년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해 청년의 권익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협의체 출범은 진안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중요한 자리다"며 "청년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지난 1월부터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읍면 순회간담회, 청년기본조례제정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청년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회 전주한옥마을 전통가요제 성료

한옥마을,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고 문화예술의 도시건설에 이바지해 시민과 관광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다는 취지에 열린 제2회 한옥마을 전통가요제가 최근 전주 종남문 문화 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본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박인수 한국문화예술진흥회총본부 이사장, 이철수 완산구청장, 이남숙 전주시의원, 김성희 대회 재전위원장, 김안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고, 대회 참가자들은 열띤 무대를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진시원(대정시)씨가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고, 최정란(전주시)씨가 최우수수상, 공정예(군산시)씨와 강민수(익산시)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와 함께 병행 진행한 대회공로 표창장에서는 김성희(전주시)씨가 전주시장 표창, 임재욱(전주시)씨가 전주시의회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김제 만경읍민의 날 행사 준비 총력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의 기틀을 다지고 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한마음을 대추해 '만경 읍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10일 만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만경읍 지역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형)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만경읍민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은 물론 재경향우회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골고루 초청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채롭고 화려한 식전·후 행사를 통해 읍민 모두가 모든 근심과 시름을 내려놓고 모처럼 흥겨운 경축 분위기 속에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올 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5일(토)오전 9시 30분부터 만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500여명의 읍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 갈 계획이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지난 여름내내 무더위와 여름철자라에 호우피해도 크나큰 재해없이 잘 버텨오신 읍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발전에 읍민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과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만경읍의 꿈과 미래를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삼계면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 축제' 개최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 축제위원회(위원장 조광래)에서 주최하는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 축제'가 지난 8일 삼계면 두월리 마을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사라져가는 토착민요인 농요를 70년대 초 조선일보에 처음 소개한 이래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까지 복원·전승돼지고 있다.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 말천방 들노래는 주민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타월림 김늘이를 시작으로 열린 축제는 말천방 들노래 현장시연 및 전통혼례 재현 퍼포먼스, 말천방농요 풍쿠르 대회, 방문객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축제위원장 조광래씨는 "앞으로도 농경문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농요를 복원 전승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6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66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사

전북지방우정청

◇ 전보

▲김환국 사업지원국 운영지원과 ▲정윤성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배찬식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김연희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이후선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 ▲김종훈 감사관실▲경현명 임실우우체국 ▲김수인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안은경 고창우체국 영업과 ▲김지연 원주우체국 우편물류과 ▲전경이 전주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9월 10일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